

## 낙농경영의 승패는 육성우관리가 중요



손민우 / 삼민목장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668

종축개량을 통한 고능력우 위주의 목장경영을 위해 '87년부터 종축개량을 실시하여 현재는 전 두수가 혈통 등록이 되어 있고 젖소개량부로부터 검정등록을 실시하면서 검정성적을 기록 관리하며 개체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친 및 형질개량을 위하여 우수한 고능력우의 정액을 이용하고 '90년도부터는 자가인공수정을 시키고 있다.

지리산에서 발현되는 덕천강 줄기를 따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울어져 있는 이곳에서 낙농을 시작한지 17년이 지났다. 그 이전에는 경남 양산의 선천이 일하던 목장에서 자연스럽게 목장 일에 익숙해져 현재까지 목장 경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영위해 나갈 것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젖소 2마리와 함께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시작하였다.

현재 착유 30두, 건유 2두, 초임두 8두, 육성우 11두, 송아지 8두로 총 두수 5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착유우 30두에 평균 산유량이 25kg을 생산하고 있다.

원유등급은 유지방 4.0%, 세균수 1급A, 체세포수 1등급을 유지하면서 높은 유대를 받고 있다.

'95년에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자금을 받아 인근 농가와 협업으로 조사료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육

수수, 호맥, 라이그라스를 사일리지 제조하여 연중 일정량을 급여하고 있으며, 착유실은 자동텐덤(2×3두용)설치하여 30두 착유하는데 60분이 소요되어 착유에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어 보다 더 경영관리 및 조사료 확보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경영 및 사양관리는 최적종모우 선정, 경영분석, 사료급여량 계산 등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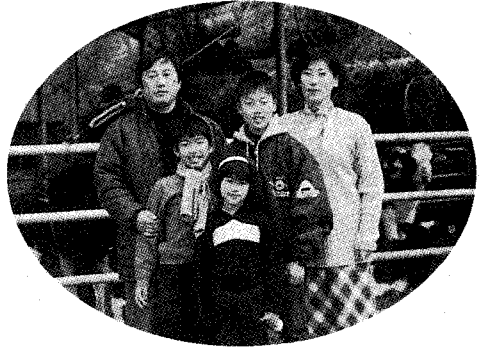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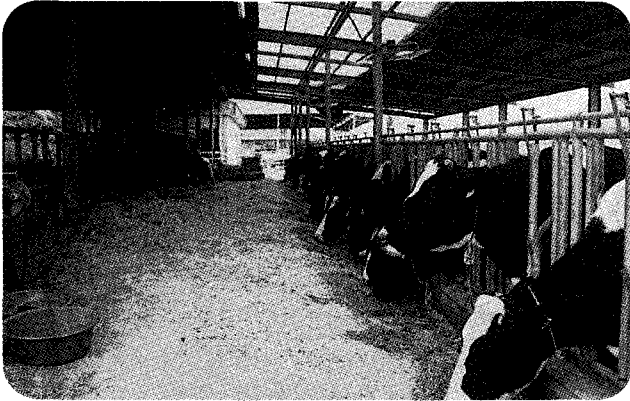
조사료 생산의 기반으로는 자가 면적은 불경운초지 6,000평, 사료작물포 5,000평이고 임대사료포가 5,000평으로 조사료 생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사일로의 용량이 적어 앞으로 증축할 계획이며 연중 사일리지를 급여하여 고능력우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익이 남은 소」라는 것은 비유

능력이 높고, 번식 성적도 좋은 소이지만 농가의 실태는 뜻에 반해서 좋은 소에서 병이나 번식장애우가 되어 도태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낙농업을 하면서 젖소 몇십마리를 도태하지 않은 농가가 없을 것이다. 유방염우, 부제병, 고창증, 번식장애 등 농가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농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번식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공태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식기관내의 호르몬 이상 또는 과비로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수의사 검진을 통하여 호르몬 치료 또는 BODY CONDITION 관리로 해결하고 있으며, 발굽관리를 통하여 부제병 예방을 하고 있다. 또한 위생적인 축사관리를 위하여 시설여건을 환풍과 건조시설 및 월 1회의 주기적인 축사소독으로 위생관리



에 주력하고 있다.

건유우 및 만삭우는 관리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찰이 용이하고, 가축이 항상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한다.

낙농경영의 승패는 건유우 관리도 중요하지만 육성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장에 장래는 장차 성우를 대치할 육성우의 우량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조사료 급여량의 증대로 1위의 용적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고, 정기적인 방목관리로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하여 육성우를 자체 생산하여 인근 농가에 분양도 하였고, 그 육성축이 성우가 되어 현재 경영수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뜸밥 또는 왕겨를 이용한 발효식 우사이다. 월 1회 축사청소로 퇴비장에 퇴적하여 발효처리 후 초지 및 사료 작물포에 살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근 원예작물농장에 공급하기도 한다.

**낙농경영을 위한 삼민목장의 4대 지표**

1. 내일 목장을 폐업하더라도 쫓소의 능력 개량에 전념 할 것이다.

대다수의 농가가 IMF여파로 능력 개량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당시 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 농가는 종모우를 우군에 투입하기도 하고, 일부는 저가의 정액을 사용하여 개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낙농산업은 꾸준히 유지하고 우리 나라의 낙농산업을 선진국에 올릴 수 있는 길은 능력개량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농후사료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고 조사료 생산에 전념하여 연중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산유량이 높을수록 두당 TDN 급여량이 많으며 고영양 사료를 많이 급여하여 농후사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생산비 과다지출, 번식장애, 대사성질병 등으로 고능력우의 생산성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자에서 서술하였지만 낙농경영 전반을 전산화하여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가축관리 및 조사료 생산에 주

력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떠한 업종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4. 현재 고능력우의 분만간격이 14개월로 목표수준인 13.5개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기적인 개체 관찰 및 관리로 분만 간격을 단축시켜 송아지 생산 및 비유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것이며 정기적인 발굽관리 등 질병관리로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낙농을 시작한지 어느덧 20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련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으나 지역에서 1인자라고 할 만큼 낙농경영에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현재의 개체별 평균산유량을 30kg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육성축의 증가로 년중 1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포 확보, 시설확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낙농경영을 위한 4대 지표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남의 1인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락처 : 0596-972-5796〉